

삼학도 5성급 호텔 건립 찬반 대립

목포시 "상징성·위치 등 최적지" 환경연 "복원화 사업 취지 역행"

목포시가 목포의 상징인 삼학도에 추진하는 '5성급 호텔' 건립사업이 출발 전상부터 장소의 적정성 등을 두고 찬·반 대립 양상을 띠면서 사업 난항이 예상된다.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삼학도가 최적지라는 목포시의 입장과 달리 20여 년이 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삼학도복원화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삼학도 전체면적 57만4000여㎡ 중 육지부 11만㎡와 해변부 9만5000㎡ 등 옛 석탄부두 일원 20만5000㎡에 대한 기존 공원계획을 유원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에 들어갔다.

이번 공모는 산업화의 거점이었다던 삼학도를 호텔과 워터파크 등을 갖춘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킨다는 취지이다. 특히 국제규모 행사 유치 가능성이 높은 컨벤션시설을 포함한 5성급 이상 관광호텔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삼학도에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삼학도가 갖는 의미와 가치, 지리적 위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당 평화광장과 삼학도-유달유원지-북항의 노을공원을 잇는 해안라인의 중심이 삼학도라는 것이다.

또 원도심의 근대역사공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목포역, 유달산케이블카 등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고, 목포의 브랜드가치 상승 및 관광객 유치의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20여년이 넘도록 1000여 역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삼학도복원화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목포시는 2000년부터 삼학도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섬 복원과 대대적인 정비에 위해 수백원의 보상금을 한국계분과 한국냉장 등에 지급했고, 호안수로와 교량,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쉴수 있는 웰빙공원으로 조성했다"며 "삼학도는 당초 복원화사업의 취지대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오는 4일 이와 관련해 성명서

를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호텔 건립 반대에 나설 계획이다.

목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장복남 대표는 "컨벤션과 호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사업임에는 틀림 없다. 고용창출과 체류형 관광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만큼 목포시가 추진하는 게 맞지만 사업자 선정에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수천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지난 달 20일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오는 4일 참여 의향을 마감하는 것은 이미 특정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꼬집었다.

목포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소통절차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유달산과 삼학도는 목포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존과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공원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원화 관광인프라를 갖춘 효율적인 삼학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



진도 고군면 금호도~의신면 모도 도선 취항

진도 고군면 금호도-의신면 모도 간 도선 운항이 1일부터 시작됐다. 금호도는 69명(36세대), 모도는 75명(41세대)이 거주하고 있다.

기존 금호도-모도 도선은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기상 악화 시 운행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컸다. 진도군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선박 건조에 들어갔다.

주민 참여형으로 설계, 선체 제작,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을 이장과 도선 선장을 참여시켜 주민이

원하는 도선을 건조했다.

새롭게 건조한 도선 2척은 총톤수 12t, 최고 항속 16노트로 선장을 포함한 12명이 승선할 수 있다. 금다리호(사진)는 금호도-모도를 하루 5차례, 모세호는 금호도-모도를 하루 4차례 각각 왕복 운행한다.

지난 31일 의신면 초평항에서 열린 진수식에는 이동진 진도군수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완도 보길도·예송 해수욕장 친환경 '블루플래그' 인증

국내 유일 한 지역 2곳 동시 인증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보길 예송 해수욕장이 친환경 해수욕장에 주어지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했다.

신지 명사십리는 3년 연속, 보길 예송은 신규 획득으로, 한 지역에서 2개 해수욕장이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완도군은 최근 환경교육재단(FEE) 국내 본부인 FEE KOREA로부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보길 예송 해수욕장에 대한 '블루플래그' 인증서를 받았다.

블루플래그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블루플래그 인증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환경교육재단(FEE)에서 안전, 환경교육, 수질, 주변 환경 등 4개 분야, 29개 평가 항목, 137개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해수욕장에 부여한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한 이후 3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2019년 이후 3년 연속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했다. <완도군 제공>

올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보길 예송 해수욕장은 청명석 갯들로 이뤄진 길이 2km, 폭 50m의 해변으로 안정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질의 경우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완도군 관계자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국내 제1호 블루플래그 3년 연속 인증과 함께 보길 예송 해수욕장이 신규로 인증을 획득해 '국내 최고의 깨끗한 해수욕장 이미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담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풍력발전 특별법 발의 김원이 의원 규탄 집회

어업인·수산업계 "수산업 말살"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 한 특별법안 저지에 나섰다.

한국수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업계는 2일 오전 목포시 하당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 사무소 앞에서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이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안은 풍력발전 허가를 받기 위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평균 6-7년, 심할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 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국을 설치해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특별법안은 수산업 말살 행위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긴급회의를 갖고 '풍력발전 특별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릴레이 항의 집회를 전국적으로 갖기로 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산업계 입장에서 특별법안은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며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만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민간협의회 구성시 어민대표와 어업인 단체 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환경성 평가와 협의절차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발굴 단계부터 충분히 검증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확대 운영

해남군은 야간학습 참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사업을 6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는 야간학습으로 인해 늦은 시간 귀가하는 청소년들이 택시를 이용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택시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기존 학교 야간학습 참여자만 이용할 수 있던 대상범위를 넓혀 방과후 학원 등을 다니는 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신청은 소속 학교 또는 군청 환경교통과에 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참여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다 많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는 학교나 학원에서 집까지 귀가거리가 1km 이상이고, 야간학습으로 인해 일몰 이후에 귀가하는 중등학교 재학생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소속 학교 또는 군청 환경교통과에 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영암군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상병과 열사병으로 대변되는 온열질환자나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라남도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영암군에는 영암한국병원에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암한국병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매일

온열질환 발생 추이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통한 주민 건강피해 최소화를 꾀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똥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